

이재명 광주 찾아 호남민심 추스르기

민주 신임 지도부 첫 지방일정

오늘 DJ센터서 최고위원회

'더 나은 민주당' 타운홀 미팅

내일 5·18 묘지 참배·양동시장 찾아

지명직 최고위원 호남인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등 신임 지도부가 취임 이후 첫 지방 일정으로, 첫방인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1박 2일간 호남에 머물며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당원과 시민들을 차례로 만나며 지역 민심을 추스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6·1 지방선거에서 광주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데다, 당 지도부 선거에서마저 호남지역 당원들의 투표율이 바닥을 치는 등 텃밭 민심에 사투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1일 광주를 찾아 오후 7시30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이재명 당 대표'와 함께 하는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더 나은 민주당 타운홀 미팅은 광주·전남이 첫 개최지로, 조정식 사무총장과 박성준 대변인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당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이 대표가 지역 당원들과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 정서와 호남 민심에 대해 정취했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2일 오전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오전 10시30분 김대중컨벤션센터로 다시 찾아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다. 최고위에서는 광주를 비롯한 호남 맞춤형 지원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호남의 핵심 현안 사업에 대한 입법지원을 확실히 약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회의를 마친 뒤 오전 11시30분에는 민생 현장 방문 일환으로 국내 최대 규모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 한편,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가운데 1

명을 호남 인사로 배치기로 마음을 굳힌 가운데, 광주 현지에서 '호남 최고위원'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 대표 측은 호남지역 국회의원이 아닌 호남에 기반을 둔 원의 인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대표가 전국 정당화를 강조해 온 만큼 지명직 최고위원 나머지 1명은 영남권 원의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직 최고' 2명을 호남과 영남 인사로 안배기로 한 것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수도권 의원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지명직 최고위원은 여성·청년·노동·지역 등을 고려하는데 선출 최고위원 가운데 이미 여성(고민정·서영교)과 청년(장경태)은 '충족'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영남 최고위원 인선이 마땅치 않을 경우 노동계 추천 인사를 발탁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 대표는 또 주요 당직 인선을 이번 주말 안에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핵심 포스트인 사무총장(조정식)과 정책위의장(김성환) 인선은 완료된 상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문 대상 수상

한신협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

광주일보 등 전국 대표 지방신문 모임체인 한국지방신문협회(이하 한신협)가 주최한 '2022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에서 광주시가 광역자치단체 행정 부문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신협은 지난 3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박람회 행사에서 각 부문별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시상식은 지방의회 가치를 높이고 지방행정과 상호 발전 방향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 확대와 대외적 정책 홍보를 위한 '대한민국 지방의회·지방행정 박람회'의 공식 행사로 열렸다.

시상은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지방의회와 우수한 정책으로 지역발전과 지방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성과를 거둔 지방행정 분야로 나누어

진행됐다.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문은 대상에는 광주시가 차지했으며, 금상은 제주특별자치도, 은상은 인천광역시가 수상했다.

광역자치단체 의회 부문은 경기도의회가 대상을 수상했고, 금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은상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 부문은 수원특례시의회가 대상을 받았고, 고양특례시의회와 속초시의회가 나란히 금상을 수상했다. 정선군 의회 및 의정부시 의회는 은상을 수상했으며, 평택시 의회는 동상을 수상했다.

기초자치단체 행정 부문은 고양특례시와 부천시가 공동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와 과천시 금상을, 진안군과 평창군은 은상을 각각 수상했다. 동상은 파주시와 용인특례시가 각각 받았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총리 만난 이재명 "초 대기업 세금 왜 깎나"

한 "대선 공동공약 빨리 진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예방을 받고 국정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야당이 협력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을 놓고선 뼈 있는 말들이 오갔다.

한 총리는 먼저 "민주당과의 협치, 협력으로 국정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라며 "이 대표의 조언과 경우에 따라 질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국정에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야당 본연의 역할로서 필요한 견제도 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데 여야가 없는 만큼 민생은 경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선 당시 여야가 공동으로 약속한 정책은 공동의 공약기구를 만들어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한 총리는 "여야정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실무 협의체까지 만들어 실질적으로 움직여 보자는 생각"이라며 "여야 공동의 과제는 빨리빨리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급하지 않은, 영업의 3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 대기업의 세금은 왜 깎아주겠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 된다"며 "서민들 임대주택 예산을 줄일 만큼 급한 일인가"고 지적했다.

그러자 한 총리는 "세계가 법인세를 다 낮추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며 "상당 부분 민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민간으로 넘기고, 정부는 민간의 활동을 지원 하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정훈 의원 '쌀값 정상화 과제 모색 간담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TF 팀장인 신정훈(나주회순) 국회의원 1일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쌀값 정상화를 위한 과제 모색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위성곤 정책수석부대표, 신정훈 선임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소병훈 농해수위 위원장,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수흥, 김희재, 안호영, 양경숙, 윤준병, 주철현(가나나순) 의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은안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 최영철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감사, 문병만 농협RPC전국협의회 자문위원 등으로부터 현장의 어려움을 살폈다.

또 전문가로 심증식 한국농정신문 편집국장, 하



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변호사), 김종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연구위원이 참석했으며,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 이철원 농협경제지주 상무도 함께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신정훈 의원은 최근 쌀값 동향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쌀값 정상화법'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1일 워크숍에서 정기국회 22대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로 '쌀값정상화법' '양곡관리법'을 채택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소환 통보...민주 "정치탄압" 반발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 요구

검찰이 이른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 1일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이날 이 대표 측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검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

후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경기지사 자격으로 출석,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지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차장에게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례 없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소환 통보에 민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묻지마 소환'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회사 사정상, 매매

- 1. 대인동 156평, 신안동 176평
- 2.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가, 위치 좋음
- 3.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중
- 4. 매매 - 평당 1300만원씩

문의. 010-3605-5000

투자하실분, 덕남동 임야

- 임야 2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도로접함, 개발호재 많음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매매 - 4400만원(조정가)

문의. 010-3605-5000